

공원문화 정착의 선도역(先導役)으로

- 제7회 국립공원 대회에 -

이 경 식 < 국립공원협회 회장 >

오늘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며 아름다운 청정국토(淸淨國土)를 길이 보존하고 가꾸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천하의 명산인이 국립공원 설악산 자락에 한데 모였습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보람스런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푸른 하늘아래 울창한 숲, 맑은 물과 깊은 계곡 그 속에 서식하는 온갖 생물들은 우리가 자랑하는 국립공원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천혜의 자연자원인 국립공원을 아끼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가장 성스러운 책무입니다.

생각하건대 근대 산업발달과 더불어 도시 팽창에 따른 개발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토양의 훼손과 산림의 황폐, 수자원의 고갈, 대기와 해양오염 등 자연환경의 손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고 방치된다면 머지않아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게되는 무서운 위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옛부터 「수림이 우거지면 부자가 나고 숲이 망가지면 마을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과 공기는 물론 흙과 돌, 온갖 동식

물, 그리고 우주 기상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어느 한가지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원이자 생활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주의 신비와 대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생활의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국립공원은 때묻지 않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고 청정환경(淸淨環境)의 표본이며, 나라의 얼굴입니다. 국립공원은 또한 청결, 조화, 질서, 협동의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생명의 교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아끼고 가꾸며 보호하는데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 땅에서 번창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후손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립공원대회를 계기로 우리 협회에서는 국립공원의 올바른 이용과 계도에 봉사적으로 출선하는 '국립공원 청소년 녹색봉사단'을 구성하고 그 발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활력과 투지로 넘치는 젊은이들이 찬란한 '녹색봉사단기'를 선두로 도열해 있습니다. 이 씩씩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밝은 내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전국의 자연애호가 여러분과 더불어 뜨거운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들 곳곳한 젊은이들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을 사랑하고 가꾸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며, 우리 모두 그들의 활기찬 봉사활동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매월 첫째 일요일을 본회의 「국립공원의 날」로 정하고 협회 본부와 전국 28개 지부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월 1회 자연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확대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들은 물론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주실것을 기대하는바 입니다.

국립공원 가꾸기와 자연사랑운동은 결코 남이 강요하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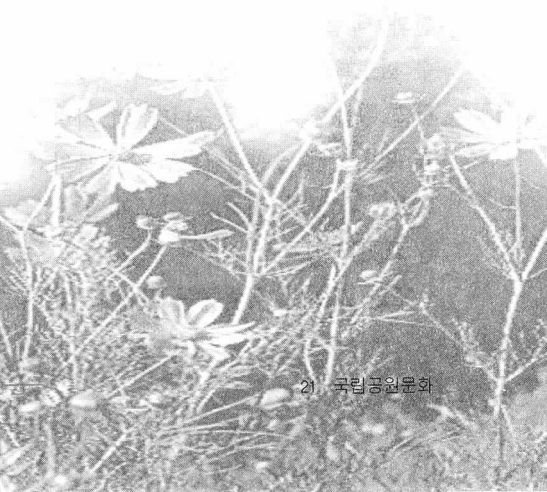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의 생활환경을 우리들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자율적 운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운동의 확산이 바로 ‘국립공원문화’로 승화되고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 생활의 일부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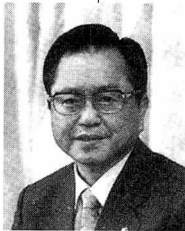
올해는 설악산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다섯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스물여덟해가 되는 해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하늘아래, 1960년도만 해도 2, 3천마리의 산양이 있었다고 하는 이 유서 깊고 수려한 경관의 울창한 숲속에서 우리들의 올바른 국립공원문화를 발전시킴과 아울러 국립공원인의 자부심과 단합을 다지기 위한 설악축제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은 부강한 나라의 징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축제가, 자연 속의

국립공원을 가꾸고 보존함이 바로 인간존중과 생명보호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분발하고 협력하여 더욱 알찬 “공원문화발전운동”에 힘차게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번호 「말씀」은 지난 9월 24~25일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개최된 제7회 국립공원대회 -설악축제-에서 있었던 이경식 회장의 대회사 전문으로 했다.





국립공원, 이용보다 보전중심으로

-제7회 국립공원대회 치사-

최 재 욱 <환경부장관>

먼

저 이 아름다운 설악산에서 국립공원협회 주관으로 「공원사랑, 자연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7회 국립공원대회 설악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립공원협회는 국립공원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 '71년도에 뜻을 모아 설립한 민간조직으로서 그동안 자연 생태계보전과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그리고 많은 학술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립공원협회회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국립공원 보전을 위

하여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풍경지일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 주어야 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은 가능한한 “개발을 지양”하고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중에서 그래도 국립공원 만큼은 공원을 사랑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체적으로 온전히 지켜져 왔습니다만, 일부 공원의 자원과 생태계가 훼손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질 높은 공원탐방을 바라고 있어 국립공원의 관리는 더욱더 새롭게 바뀌어야 할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국립공원의 관리업무가 과거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립공원을 이용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온전히 관리해 나가야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국립공원은 공원자원과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진정한 자연학습장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탐방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원 집단시설지구의 확대개발은 억제하되, 국립공원이 자연탐방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이용시설 등은 필요한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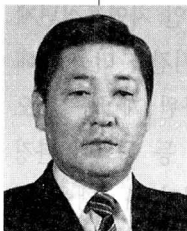
행락철 성수기에 공원의 집중이용에 의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락인과의 사전예약제

와 공원시설이용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현재 시행중인 자연휴식년제는 그 대상 범위와 기간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계곡수질 오염방지 쓰레기 처리 등 공원내 환경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국립공원을 보전하여 나가는 것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공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공통의 의식이 있을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요구되는 이 시기에 오늘부터 열리는 이 뜻 깊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의 의식을 다시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하여 수고하신 국립공원협회 회장님과 관계자, 국립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 보호의 길잡이 될 터

-제7회 국립공원대회 축사-

권 익 현 <국회국립공원발전연구회장>

아름다운 동해의 출렁이는 물결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절경중 하나인 이곳 설악산에서 「자연사랑, 공원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국립공원설악축제’에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주신 국립공원 애호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환경보전수준은 바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성한 의무

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서로 의존하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는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자연을 파괴해 왔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는 것을 새롭게 자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호해 나가는데 우리의 국립공원제도는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국립공원은 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국립공원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재산권행사나 여

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96년 국회에서는 우리 국립공원을 사랑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외치는 의원 40명으로 국회국립공원발전연구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회는 국립공원의 생태학적 보존방안, 국립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 국립공원관리의 현실 및 제안에 대한 세미나와 금수강산 사진대전을 개최하여 어느 누구보다 자연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립공원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몇몇 언론에 비취진 우리 연구회에 대한 오도된 시각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마무리 되어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회에서 관계인들의 토론의 장을 열어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역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 그리고 연구진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혀 지금 당장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국립공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는 미래지

향적인 재정비 사업이 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주장한 것 처럼 사실과 너무나 다르게 보도하여 전체 국회의원들과 본 연구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국립공원발전연구회는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국토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국립공원 동호인과 더불어, 자연보호의 길잡이가 되어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하고, 국립공원제도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몫을 다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뜻깊게 마련된 오늘의 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대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이경식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임대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만 축사에 가름합니다.▲▲



친환경적 보전 위주의 관리

-제7회 국립공원대회 축사-

염 대 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천 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뜻깊은 제7회 국립공원대회를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이경식 회장님을 비롯한 공원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의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존경하는 최재욱 장관님과 권익현 국회국립공원발전연구회장님, 국립공원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대회를 축하하고 내년

에 한국에서 있을 예정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산하의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 위원회 동아시아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차 호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에서까지 관계자가 참석 해주시어 이번 대회는 그 어느때 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생물종 다양성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연간 약 4천만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는 국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우리는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자연유산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온전히 보호하여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공단 이사장 취임 이전부터 자연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과 활동을 해 왔으나, 제도권 밖에서의 요구·주장이 현실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립공원관리 책임을 맡은 이후에는 그간 터득한 자연보호철학을 공원관리 정책에 반영하여 소신껏 추진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국립공원관리 철학은 개발과 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 보전 위주의 기조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 철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

습니다.

이번 공원대회에서 있게 될 국립공원 청소년 녹색봉사단의 발대식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게 될 국제 학술세미나는 국립공원과 국토보전을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아무쪼록 제7회 국립공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모두가 뜻을 모아 환경친화적인 한마음으로 공유의 목표를 지향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